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25 주차 (롬 8:28~8:34)

(2016년 2월 18일 - 2018년 2월 24일)

(제5권 25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25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8 년 2 월 18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주일)

오늘의 본문 (롬 8:28~30)

- 28 Οἴδαμεν δὲ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ὅτι τοῖς ἀγαπῶσιν τὸν θεὸν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πάντα συνεργεῖ εἰς ἀγαθόν,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한다)
τοῖς κατὰ πρόθεσιν κλητοῖς οὖσιν.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 29 ὅτι οὐς προέγνω,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καὶ προώρισεν συμμόρφους τῆς εἰκόνης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그의 아들의 이미지를 본받도록 미리 택하셨으니)
εἰς τὸ εἶναι αὐτὸν πρωτότοκον ἐν πολλοῖς ἀδελφοῖς· (그 결과 그가 모든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었다)
- 30 οὐς δὲ προώρισεν, (그가 미리 택하신 그들을)
τύτους καὶ ἐκάλωσεν· (그가 또한 부르셨다)
καὶ οὐς ἐκάλωσεν, (그가 부르신 그들을)
τούτους καὶ ἐδικαίωσεν· (그가 또한 의롭게 하셨다)
οὐς δὲ ἐδικαίωσεν, (그가 의롭게 한 그들을)
τούτους καὶ ἐδόξασεν. (그가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지 미지수다. 왜냐하면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이토록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보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을 영적인 것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는 일이 교회 내에서 다반사로 일어날 수도 없다.

조금만 생각을 해 보아도 이 말에 다들 동의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생명을 얻었다고 간증을 한다. 하지만 그 중엔 간증 같지 않은 간증도 많다. 자신이 정말 죽을 수 밖에 없던 멸망의 자식이었음을 깨닫고 사망의 구렁이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명의 은인에게 이것저것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독교 신앙은 그 뿌리부터 다시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바울은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 성도들을 수동적 대상으로 놓는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도는 철저하게 그 결과의 수혜자다. 우리가 구원 사역에 보탬이 하나도 없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과거 2000년 전 골고다의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보태기는커녕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도 벅하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듣는 즉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 옛날 십자가 사건이 성도 개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일을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30절은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성경 구절이다. 28절이 총론이라면 29절부터는 각론에 해당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그 구원을 설득해 내는 것도 하나님 몫이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앞에 무릎 꿇게 되어있다.

2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의 아들의 이미지를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택하셨으며 그 결과 그가 모든 형제들 중에서 만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선언한다. 미리 택하셨다는 말이 그 유명한 예정이다. 이 말씀이 예정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 필자는 지금 여기서 예정론이 옳으나 그르나에 대한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복음이 각 성도들에게 임했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예정이 되어 있어서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 믿고 보니 하나님이 자신을 미리 선택하셨음을 깨닫게 되었는지 선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보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입장에서 예정론이 옳으니 그르니 논쟁하는 것은 구원의 과정에서 순전히 우리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했느냐 그 차이인데 사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내면에 일어나는 믿음의 과정을 정확히 관찰할 수는 없다. 다만 필자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예정론에 동의한다. 하지만 필자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결코 그들과 논쟁하거나 또는 그들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성경은 예정을 지지하는 내용도 많지만 또 한편으론 그 반대로 보이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겪은 특별한 체험 때문인지 여러 편지에서 예정론을 지지하고 있는 듯하다.

예정론은 차치하고 이제부터 본문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복음의 정수를 맞보기로 하자. 하나님이 성도를 미리 아셨다. ‘미리 알았다’는 헬리어 단어는 ‘미리’를 의미하는 ‘프로(προ) 와 ‘대상을 알다’라는 단어의 ‘기노스코(γινώσκω)가 합쳐진 합성어다. ‘앞서 알았다’는 말은 항상 비교하는 대상이 있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른 채 살다가 생을 마감할지 아무도 모른다.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예루살렘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도착하기 직전 예수님이 직접 그를 찾아오셨다. 예수님은 그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그가 어떤 성정을 가진 사람이며,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다 알고 계셨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오로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일 생각으로 다마스쿠스를 향해 발길을 재촉했다. 바울은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만날 준비를 하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 드디어 그 시간이 왔다. 바울의 눈에 멀리 다마스쿠스가 들어왔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존재들로 여겼기에 당연히 잡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마스쿠스가 눈에 들어오자 그는 살기 등등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체포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것인지 전략을 재점검하기 바빴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 하며 강한 빛이 그를 비쳤다. 빛이 너무도 강렬해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날 바울은 그토록 증오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계획한 대로 다마스쿠스에 도착하긴 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열성 유대주의자가 아니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 일로 인해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바울의 미래를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지만 바울은 자신의 앞날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바울처럼 변한다. 전혀 감지되지 않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실체를 분명히 알게 되고 또 자기가 과거에 좇았던 것들이 다 허상임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설득당해 복음을 좇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이 당신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본받는다는 것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 8:28~30)

- 28 Οἴδαμεν δὲ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ὅτι τοῖς ἀγαπῶσιν τὸν θεὸν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πάντα συνεργεῖ εἰς ἀγαθόν,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한다)
τοῖς κατὰ πρόθεσιν κλητοῖς οὖσιν.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 29 ὅτι οὐς προέγνω,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καὶ προώρισεν συμμόρφους τῆς εἰκόνης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그의 아들의 이미지를 본받도록 미리 택하셨으니)
εἰς τὸ εἶναι αὐτὸν πρωτότοκον ἐν πολλοῖς ἀδελφοῖς· (그 결과 그가 모든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었다)
- 30 οὐς δὲ προώρισεν, (그가 미리 택하신 그들을)
τύτους καὶ ἐκάλωσεν· (그가 또한 부르셨다)
καὶ οὐς ἐκάλωσεν, (그가 부르신 그들을)
τούτους καὶ ἐδικαίωσεν· (그가 또한 의롭게 하셨다)
οὐς δὲ ἐδικαίωσεν, (그가 의롭게 한 그들을)
τούτους καὶ ἐδόξασεν. (그가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나 구원하지 않는다. 또한 구원한 후에도 알아서 살도록 그냥 놔 두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미리 예정하여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확신시키는 가장 큰 목적은 아들의 이미지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미리 정하시다’의 헬라어 단어는 프로호리조(προορίζω)다. 이 단어는 접두어 프로(προ)와 동사 호리조(ορίζω)의 합성어다. 호리조(ορίζω)는 ‘한계를 정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 호라이즌(horizon)이 나왔다. 마틴로이드 존스 목사는 자신이 쓴 로마서 강해에서 ‘미리 정하셨다’는 말을 영어의 수평선에 빗대 설명했다. 수평선은 인간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경계선이다. 수평선 너머는 볼 수도 알 수도 없다. 수평선을 경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과 볼 수 없는 영역으로 나뉜다. 수평선을 기준으로 그 경계의 안과 밖은 서로 다른 세계이며 완전히 별개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사람들을 이 경계선 안으로 모으신다 (Martin Lloyd-Jones, *Romans: Exposition of Chapter 8:17-39; The Final Perseverance of the Saints* (Banner of Truth, 1975), p241 참조).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 안으로 인도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마틴로이드 존스 목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프리호리조라는 단어를 설명했다. 베드로는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소개한다. 택하신 족속이란 선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성도를 구별하여 한 족속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다. 수평선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정해 두신 경계 안으로 그들을 넣으신 것이다. 그렇기에 성도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실까?

바울은 29 절에서 ‘그의 아들의 이미지를 본받도록 우리를 경계 안으로 부르셨다고 말한다. 물론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이미지는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하실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사랑이 무한한 분임을 부각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들이 흔히 생각하는 마음씨 좋고 인자한 사람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예수님의 삶은 복음의 삶 그 자체였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나온 죄인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는 분이지만 진리를 거부하고 율법으로 자신들의 의만 차곡차곡 쌓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가차없는 독설을 퍼부으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희생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만 강조하며 그것으로 돈벌이 기회로 삼아 성전에서 온갖 상거래를 일삼고 있던 사람들을 내어 쫓고 상을 뒤엎기까지 하셨다.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설을 퍼붓거나 성전 시위를 하실 때 보이신 모습은 사랑, 인자함보다는 서슬퍼른 정의와 공의가 먼저 떠오른다. 물론 이런 정의와 공의도 우리가 닮아야 하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궁극적인 예수님의 이미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를 닮아야 하는 걸까? 이 점에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분의 이미지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 히브리서 5 장 8-9 절을 읽어보자.

“⁸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⁹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 5:8-9).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이미지는 다름 아닌 순종이다. 그 순종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이미지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그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원치 않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놓치고 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도덕적 완전함이나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강조하는데 사실 그것은 부차적인 것들이다. 우리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이같은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더 분명해진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⁶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⁷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살전 1:6-7).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도덕적 완전, 사랑, 자비 등으로 해석하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소위 폭력배까지 동원해 바울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훼방했고, 그 때문에 바울은 겨우 세 번만 전도 집회를 열고 남쪽 아테네로 피신해야 했다. 아테네까지 도망쳐 온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근황이 너무도 궁금해서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견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고 온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었으며 이미 순교한 사람들도 생겼다고 전했다. 바울은 마음 한 켠이 쓰라렸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대견하게 생각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한 것에 대해 바울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라고 칭찬한 것이다. 예수님의 이미지는 고난이고 십자가다. 그분의 모든 가르침이 오직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땅에 미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 자들이 무엇 때문에 땅의 것들을 가지려고 이등바등 하겠는가? 예수님의 이미지를 본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본받고 싶은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닮고 싶은가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 8:28~30)

- 28 Οἴδαμεν δὲ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ὅτι τοῖς ἀγαπῶσιν τὸν θεὸν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πάντα συνεργεῖ εἰς ἀγαθόν,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한다)
τοῖς κατὰ πρόθεσιν κλητοῖς οὖσιν.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 29 ὅτι οὐς προέγνω,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καὶ προώρισεν συμμόρφους τῆς εἰκόνης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그의 아들의 이미지를 본받도록 미리 택하셨으니)
εἰς τὸ εἶναι αὐτὸν πρωτότοκον ἐν πολλοῖς ἀδελφοῖς· (그 결과 그가 모든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었다)
- 30 οὐς δὲ προώρισεν, (그가 미리 택하신 그들을)
τύτους καὶ ἐκόλλωσεν· (그가 또한 부르셨다)
καὶ οὐς ἐκόλλωσεν, (그가 부르신 그들을)
τούτους καὶ ἐδικαίωσεν· (그가 또한 의롭게 하셨다)
οὐς δὲ ἐδικαίωσεν, (그가 의롭게 한 그들을)
τούτους καὶ ἐδόξασεν. (그가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다. 어떤 이들은 실제로 환청을 들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내면 속에서 속삭이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도 한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이런 식의 부르심이 아니다. 30 절에서 말하는 부르심은 구원을 확신하는 방법 중 하나를 의미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요한복음 5 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자.

“²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²⁵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5:24-25).

구원이란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상태다. 그 말은 구원이 단지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엄청난 사건이지 단지 죄인이 자기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선언받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생명이 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은 죽었던 누군가가 살아났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사건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다.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었다는 말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생명이 궁극적인 생명이 아니라는 말이다. 흔히들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유한한 생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물론 그게 전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생의 원래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생명’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 즉,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종류의 생명이나에 관한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새로운 생명을 현 세대의 생명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미래 세대의 생명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생명은 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렇게 답하고 있다.

“¹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¹⁵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¹⁶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¹⁷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4-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바울은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한다. 이전 것은 과거의 틀에 매여 율법에 종노릇하고 자신과 남을 끊임없이 정죄하던 삶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삶으로부터의 청산을 의미한다. 늘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남들에게 손가락질 해대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무력한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과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 내셨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진술하고 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더 이상 과거의 삶,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한 삶이라 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을 나의 세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격하하지 말고 대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생각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목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 부르심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 8:28~30)

- 28 Οἴδαμεν δὲ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ὅτι τοῖς ἀγαπῶσιν τὸν θεὸν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πάντα συνεργεῖ εἰς ἀγαθόν,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한다)
τοῖς κατὰ πρόθεσιν κλητοῖς οὖσιν.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 29 ὅτι οὐς προέγνω,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καὶ προώρισεν συμμόρφους τῆς εἰκόνης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그의 아들의 이미지를 본받도록 미리 택하셨으니)
εἰς τὸ εἶναι αὐτὸν πρωτότοκον ἐν πολλοῖς ἀδελφοῖς· (그 결과 그가 모든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었다)
- 30 οὐς δὲ προώρισεν, (그가 미리 택하신 그들을)
τύτους καὶ ἐκύλεσεν· (그가 또한 부르셨다)
καὶ οὐς ἐκύλεσεν, (그가 부르신 그들을)
τούτους καὶ ἐδικαίωσεν· (그가 또한 의롭게 하셨다)
οὐς δὲ ἐδικαίωσεν, (그가 의롭게 한 그들을)
τούτους καὶ ἐδόξασεν. (그가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의롭다라는 말처럼 그 의미가 애매모호한 말도 없는 것 같다. 세상에는 흔히들 말하는 의인들이 꽤나 많다. 특히나 대형 사고나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의인이라 말이 자주 등장한다. 끔찍하고 슬픈 상황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소식이 전해질 때 늘 의인이 나온다. 요즘 한국에서 연이은 화재로 수많은 분들이 생을 마감했다. 처음에는 희생자 규모나 피해 규모 등에 초점을 맞춰 그 사건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보도한다. 그 다음에는 사건의 원인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뉴스가 있다. 바로 재난 속에서도 현장을 누비며 희생자들을 구해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하려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그 중에는 다른 이들을 구하려다 정작 본인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이런 이들을 의인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인은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들의 안녕을 더 추구하는 사람, 자신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분들을 의인이라 부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은 의인을 전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며 살고 있는가? 만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한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의인이라 불릴 수 있을까? 필자는 이 질문에 섣뜻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 해서 특별히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나 무신론자들에 비해 더 의롭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뉴스에서 좋지 않은 일로 교회 이름이 거론되고 많은 사람들로 부터 비판의 소리를 듣는 일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한때 거의 모든 국민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지금도 50% 이상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미국만 해도 그렇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까지 하는 나라가 미국이지만 그들이 과연 비기독교 국가보다 더 의로운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건 그들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결코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를 의롭게 하셨다’고 선언한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뇌가 있다. 성도들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 의롭게 되었음을 안다. 바울도 ‘우리가 알고 있다’(오이다 멘 (Οἶδμεν))라는 선언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나님의 의를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몇 년 전 필자는 가족들과 옐로우 스톤 국립 공원을 여행한 적이 있다. 필자가 사는 남가주에서 옐로우 스톤까지는 차로 1000마일(1600km)이 넘는다. 너무 먼 여정이라 우리 가족은 서로 번갈아 운전을 하기로 했다. 모두가 처음 가보는 길이어서 이른 새벽에 출발해서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에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 옐로우 스톤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솔트레이크까지 약 700마일을 달려 가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옐로우 스톤까지 300마일을 더 가야 하니 실로 엄청난 강행군이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미리 솔트레이크와 옐로우스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검색해서 여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비록 필자가 옐로우 스톤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마치 가본 것처럼 옐로우 스톤 국립 공원에 대한 온갖 지식을 이미 머리에 담아둔 상태였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옐로우 스톤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니다. 옐로우 스톤에 대해 안다는 것은 직접 그곳에 가서 보고 듣고 느껴봐야만 알 수 있다. 바이슨이라고 하는 멋진 들소도 보고, 흑시라도 곰이 나올까 조마조마 하며 산길도 걸어보고, 부글부글 끓는 온천 앞에서 코를 찌르는 역겨운 유황 냄새도 맡으며, 언제 솟구칠지 모르는 가이저 앞에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필자는 비로소 옐로우 스톤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됐다.

이처럼 바울이 말한 ‘안다’는 것은 단지 책이나 인터넷 정보를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 습득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도 당연히 체험을 통해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다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큼 다 알고 있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한결같이 위인으로 추앙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식으로 습득해 알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도가 되는 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만이 ‘의롭다 하심’의 의미를 아는 자고, 그런 자들만이 성도라 불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과정은 마치 필자가 옐로우 스톤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 우리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을 때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막연한 지식 정도만 갖게 된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감추어진 우리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백기를 들고 나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 그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던 것들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한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그리고 진정으로 다가온다. 드디어 경험하게 되는 무한한 자유와 평화... 그것은 이 세상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드디어 의로움을 알게 된다. 이러한 체험은 표피적으로 알던 지식이 아닌 진정한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 선언에 진정으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의로움을 삶으로 체험한 사람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당신은 어떤 체험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 8:28~30)

- 28 Οἶδαμεν δὲ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ὅτι τοῖς ἀγαπῶσιν τὸν θεὸν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πάντα συνεργεῖ εἰς ἀγαθόν,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한다)
τοῖς κατὰ πρόθεσιν κλητοῖς οὖσιν.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 29 ὅτι οὐς προέγνω,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καὶ προώρισεν συμμόρφους τῆς εἰκότος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그의 아들의 이미지를 본받도록 미리 택하셨으니)
εἰς τὸ εἶναι αὐτὸν πρωτότοκον ἐν πολλοῖς ἀδελφοῖς· (그 결과 그가 모든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었다)
- 30 οὐς δὲ προώρισεν, (그가 미리 택하신 그들을)
τύτους καὶ ἐκύλευσεν· (그가 또한 부르셨다)
καὶ οὐς ἐκύλευσεν, (그가 부르신 그들을)
τούτους καὶ ἐδικαίωσεν· (그가 또한 의롭게 하셨다)
οὐς δὲ ἐδικαίωσεν, (그가 의롭게 한 그들을)
τούτους καὶ ἐδόξασεν. (그가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경에 쓰인 단어 중 ‘영광’이라는 것만큼 사람들이 그 뜻을 오해하고 있는 단어도 드물다. 흔히들 영광을 하나님의 빛,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광채 정도로 이해한다. 하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광채가 나오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광채가 나오는 걸 본다면 그 광채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신비한 빛이 아니다. 그렇다면 영광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들에게 그대로 구현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자신의 전체를 인간들에게 계시할 수 없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기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고 그 본질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영광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다른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마주하고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었다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지니고 계셨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를 누일 마땅한 곳이 없어 구유에 뉘었다. 누가복음을 보면 당시 베들레헴 인근에서 밤새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소식을 전한다.

“8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 2:8-14).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베들레헴 부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였다. 왜 하필이면 양치던 목자들이였을까? 그리고 왜 그들 앞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찬양을 드렸을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과 그 유래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부터는 필자가 이미 쓴 창세기 묵상 37 주차에서 그대로 인용했다.] 베들레헴에는 양떼를 지키는 망대가 있었는데 그 탑을 ‘에델 탑’ (the Tower of Eder)이라 불렀다. 에델 탑은 히브리어로 ‘미그달 에델’ (מִגְדַּל אֶדֶר)인데 이는 ‘양 무리의 탑’이라는 뜻이다. 오늘날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베들레헴 근처 또는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곳일 거라 추정만 할 뿐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이 단어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미가서 말씀에 또 다시 등장하기 때문이다.

“너 양 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미 4:8).

‘양 떼의 망대’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미그달 에델’ (מִגְדַּל אֶדֶר)이다. 미가서에는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5 장에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미 5:2).

A.D. 70 년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훼파된다. 그 사건은 유대 종파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성전을 중심으로 권세를 자랑하던 사두개인들은 성전 훼파로 삶의 터전을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에센파들은 끝까지 로마에 항전하다가 거의 자멸하다시피 했다. 오직 바리새파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며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님 말씀과 그 세부 지침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것이 미쉬나 (Mishna)다. 방대한 분량의 미쉬나는 3 세기 중엽에 완성되는데 바로 그 미쉬나에 ‘미그달 에델’ (מִגְדַּל אֶדֶר)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미쉬나의 기록에 의하면 미그달 에델은 양떼의 탑, 양떼를 지키는 망대다. 그런데 이 망대는 모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양 떼를 지키기 목적으로 세워졌다. 특별히 성전 제사에 드려질 양들은 이곳 미그달 에델에서 관리했는데, 우선 희생 제사에 쓰일 양들은 흠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엄선된 암양을 미그달 에델에 데려와 새끼를 낳게 한다. 그렇게 태어난 어린 양들은 흠이 나지 않도록 특별 관리를 했고 성전 제사에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미그달 에델에서 키웠다. 베들레헴과 ‘미그달 에델’ 그리고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 뭔가 떠오르지 않는가? [이상, 창세기 묵상 37 주차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드러났다. 찬란한 빛이 아닌 어두운 밤을 희미하게 비추는 별빛처럼 궁정이 아닌 허름한 어느 집의 마구에 누이셨고, 진정한 희생양이 되어 제물로 드려질 희생양들을 지키는 목동들에게 자신의 탄생을 알리셨다. 이것이 진정한 영광이다.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을 인간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모습으로 보여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방식도 동일하다. 우리가 세상에서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가장 초라한 존재고, 하나님의 구원만이 유일한 탈출구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영화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의 본질도 드러내신다. 자신의 모든 수치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낱알이 드러나는 경험을 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그런 영광을 입은 자로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 8:31~32)

³¹ Τι οὖν ἐροῦμεν πρὸς ταῦτα; (그런 즉, 우리가 이것에 대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εἰ ὁ θεὸς ὑπὲρ ἡμῶν,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하신다면)

τίς καθ' ἡμῶν;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³² ὅς γε τοῦ ἰδίου υἱοῦ οὐκ ἐφείσατο (그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ἀλλ' ὑπὲρ ἡμῶν πάντων παρέδωκεν αὐτόν,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그를 내어주신 분이)

πῶς οὐχὶ καὶ σὺν αὐτῷ τὰ πάντα ἡμῖν χαρίσεται;

(그분이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공짜로 내어주지 않겠는가?)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구원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 이 세상 누구도 구원의 완전성을 훼손할 수 없다. 설령 누군가가 구원을 훼손하기 위해 하늘을 향해 불평을 해대고 방탕한 삶을 산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이 훼손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이루어 낸 구원이 인간의 훼방으로 훼손된다면 어떻게 그 구원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이어지는 4 개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함을 설명한다. 티(Τι)로 시작되는 큰 질문과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세 번의 연속되는 티스(τίς)가 있다. 네 번의 연속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τίς καθ' ἡμῶν;) (31 절 하)
-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대항하여 송사를 할 것인가? (τίς ἐγκαλέσει κατὰ ἐκλεκτῶν θεοῦ;) (33 절 상)
-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τίς ὁ κατακρινὼν;) (34 절 상)
-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을 것인가? (τίς ἡμῶς χωρίσει ἀπὸ τῆς ἀγάπης τοῦ Χριστοῦ;) (35 절 상)

이 네 질문의 답은 당연히 ‘아무도 없다!’이다. 왜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바로 첫번째 질문의 조건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하신다면 (εἰ ὁ θεὸς ὑπὲρ ἡμῶν)’이란 조건문은 이어지는 세 질문 모두에 해당되는 대표 조건문이다. 여기서 바울이 만약이라는 전제를 제시했는데 이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하신다는 뜻이다. 헬라어의 조건문은 가정이 아니라 현재의 진리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네 아버지라면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당연히 자기가 아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가장 앞에 나서서 싸우신다는 걸 의미한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속한 군대의 대장이시고 그가 적군과 싸우기 위해 대표 주자로 나섰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서는 다윗이 나갔고 블레셋을 대표해서는 골리앗이 나왔다. 이때 다윗과 골리앗은 두 진영의 대표로 싸웠고 마침내 다윗이 이긴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 이처럼 이 싸움에서 우리 편 대표로 나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해보나마나 백전백승이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대적자들은 누구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사탄을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말한다. 물론 영 틀린 말은 아니다. 사탄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가 대적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 단순히 우리의 대적이 사탄이라고 도식화 하기에는 뭔가 좀 짝 짝한 구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포로로 잡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대적에게 내어주었다면 과연 그걸 승리라고 볼 수 있을까? 도대체 사탄의 힘이 얼마나 세길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사탄에게 내어주어야 한단 말인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소위 ‘사탄 배상설’(또는 사탄 보상설)이라 한다. 이 주장은 2세기 말에서 3세기 중반까지 활동했던 오리겐이 주창한 것인데 일찌기 이단으로 판결난 낡은 이론이다. 그럼에도 이런 생각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온다. 그리고 20세기 들어 C.S. 루이스가 그의 책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이런 사탄 배상설을 연상케하는 묘사를 했다.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이단으로 매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그리스도인들 중 거의 대부분이 하나 이상의 이단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점에선 필자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대적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이며 어느 부분을 읽고 있고, 그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후맥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개시키면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론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고, 그 중에서도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다. 8장은 누구나 알다시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된다. 그 선언의 근거가 바로 2절-4절이다.

“²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³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2-4).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죽으셨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것이라는 사실에 누구나 동의한다. 여기에 사탄 따위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 인간들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그것으로 죄를 깨달으라는 것이고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율법을 신격화했고 더 나아가 그 율법을 지켜내는 자신들을 우상화했다. 결국 율법이 인간을 굴복시켜 하나님께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또 다른 ‘나’라는 존재다. 그 존재는 늘 나를 죄의식 속으로 끌고간다. 때론 광야에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사탄처럼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고 스스로 높아지려 유혹하기도 하고, 때론 한없는 죄의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음을 깨달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유혹하여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또 다른 나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의 굴레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사탄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그 사탄을 어떻게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나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할 것인가?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 8:33~34)

- ³³ τίς ἐγκαλέσει κατὰ ἐκλεκτῶν θεοῦ;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대항하여 송사를 할 것인가?)
θεὸς ὁ δικαίων·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 ³⁴ τίς ὁ κατακρινῶν; (정죄하는 자는 누구인가?)
Χριστὸς [Ἰησοῦς] ὁ ἀποθανών, (죽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μᾶλλον δὲ ἐγερεῖς, (더더욱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ὃς καὶ ἐστὶν ἐν δεξιᾷ τοῦ θεοῦ,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요)
ὃς καὶ ἐντυγχάνει ὑπὲρ ἡμῶν. (우리를 대신하여 중재하시는 분이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를 대표하신다. 이 사실을 전제로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자.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대항하여 송사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송사와 정죄는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결과물이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검사가 하는 일이 송사라면, 판사가 하는 일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다. 바울은 구원의 모든 과정을 법정에서 진행되는 일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성도란 모름지기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송사를 당한다. 성도에게 가장 많은 송사를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들이다. 죄란 참으로 묘한 속성이 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행한 죄라 할지라도 죄 그 자체가 살아 남아 그 사람을 괴롭힌다. 우리를 송사하는 것은 바로 내안에 있는 죄고 그 죄를 조종하는 것은 율법이나 양심이다. 성경은 이에 대해 재미있는 설명을 하고 있다.

“²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²¹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²²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와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 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 ²³ 너희가 만일 그 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민 32:20-23).

이 말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해 모세가 한 말이다.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는 대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적극 참여하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만약 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 동편에 머물러 있다면 그 죄가 그들을 찾아 낼 것이라 경고한다. 다시 말해 죄는 그 자체로 힘이 있어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그 행위 자체는 시간 속으로 사라지지만 그 죄는 행위의 주체인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살아서 계속해서 그를 괴롭힌다. 이를 죄의식이라 한다. 죄의식은 용서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앉아 불쭙불쭙 자기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해댄다.

죄의식이 죄를 지은 사람, 즉 가해자가 가지는 감정이라면 수치심은 피해자가 갖는 감정이다. 요즈음 세간에 가

장 핫한 이슈가 소위 #ME TOO 캠페인이다. 최근에 한국에서 한 여검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당한 성추행에 대해 고백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어느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동료 선배들이 보는 앞에서 당한 그 일은 지금까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자신이 잘못된 건 하나도 없는데 고통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다.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언론에 등장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없는 현기증으로 쓰러지기까지 했다한다. 내면의 수치심은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혔다. 이처럼 죄의식이든 수치심이든 인간의 내면에는 자신을 정죄하는 율법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인간들을 무너뜨리고 끝내는 재판정에 세운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주체를 모세로 대변되는 율법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리는 자 모세니라”(요 5:45).

율법이 살아 있는 한 인간이 율법의 고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우리의 죄인됨을 날낱이 밝힌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무죄 선언을 하신다.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죄에 대해 처벌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로 처벌을 당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시기도 하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성도를 대신하여 심판 받았음을 역설함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무죄 선언을 이끌어 내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 100전 100승의 재판 결과를 이끌어 내시는 분이 계시는 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심할 수 있다. 따라서 성도란 바로 그 무죄 선언의 수혜자라는 뜻이다.

여기서 잠깐 노파심에 시족을 달고 싶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오류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무죄 선언이 인간들 사이의 무죄 선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수치심에 시달리는 피해자에게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인간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인해 생겨난 상처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바로 그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다. 진정한 회개와 사죄, 그리고 사회법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언을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 속에 생각나는 죄악이 있다면 제사를 드리기 전,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법이다. 기독교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결국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타난다. 요즘 잘못된 교리로 인해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면서도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 유지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는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하셨다. 이제 우리들이 응답할 차례다. 누구에게 잘못된 일이 생각나는가? 그러면 그를 만나 마음 깊이 진심으로 사죄하라. 그런 사죄에는 수치심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힘이 들어 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나 고소당하거나 정죄받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 사실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또 당신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